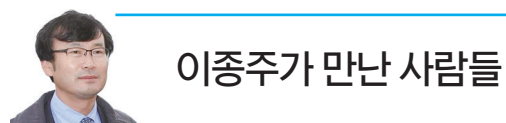


가슴 뜨거운 청년에서 국회의원...그리고 탁월한 경영인



이종주가 만난 사람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광주·전남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분들은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숨은 일꾼도 많다. 본보는 이처럼 지역민에게 귀감이 되고 희망이 되는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종주가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마련해 지역 사회에 밝고 희망 넘치는 긍정 에너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종주가 만난 사람들’은 각계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 중 본보 데스크 논의를 거쳐 선정된 주인공을 이종주 주필이 만나 소개하는 형식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봄 기운이 완연한 5월 초입에서 세 명의 김승남을 만났다. 19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던 청년 김승남이 그 하나고, 여의도에서 주무받는 정치인으로 의정 활동을 하던 국회의원 김승남이 그 둘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광주 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김승남이다. 세 명의 김승남에게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진실과 역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었다. 세월이 가도 바래지 않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었다.

#정의롭고 순수한 애국 청년 김승남

1987년 6월 16일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 ‘4·13 호헌조치 철폐’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학생들의 선두에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청년 김승남이 서 있었다. 그는 삭발을 결행하며 광주전남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다시 스무 몇 날이 지난 7월 초순 전남도청 앞 광장. 1987년 6월 항쟁의 한복판에서 경찰이 손 최류탄을 맞고 스러져간 화순 출신 이한열 열사의 추도식이 열리고 있었다. 수십만 인파가 이 열사를 애도하는 가운데 광장에 걸린 만장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추도사를 하려고 연단에 오른 청년은 “이한열 열사의 넋이 이를 모를 파랑새가 되어 여기에 날아와 앉아 있습니다”라고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십만 군중의 마음이 숙연해지는 순간이었다. 스물세 살의 청년 김승남이었다.

김승남은 이후 이인영, 우상호 등과 함께 ‘전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결성을 주도하며 전대협 부의장과 남대협 1기 의장을 맡았다. 1987년 헌법 개정과 군부독재를 종식하는 데 청춘을 바쳤다. 이 과정에서 군부독재에 의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미결수로 수감돼 있다가 1988년 12월에 시국사범에 대한 구속 취소가 청구돼 석방된 뒤 1990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1993년 만기 전역했다.

새내기 대학생 김승남이 꿈꾼 것은 어쩌면 스무 살 청춘의 사랑과 노래였을 지도 모른다. 그 시대가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 아니었다면 말이다. 그 시절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는 가슴 뜨거운 청년의 시절이 아니었다면 그는 국문학과에서 시와 사랑, 술상의 노래를 원고지에 꼭꼭 눌러 채웠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북 장단에 어깨를 맞추고 장구와 팽과리 장단에 흥을 맞춰 열췌



이종주 전남매일 주필과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이 대담하고 있다.

“40여 년 동안 김승남을 관통하며 흐르는 정신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진실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었다”

것이 아름다운 순정과 참꾼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피 끓는 청년이었으니까요. 죽을 따위가 두려웠겠어요. 오직 전두환 군부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네? 당연히 후회는 없어요. 문학도가 되고 싶어 국문과에 갔는데, 문학청년은 고사하고 시 한 줄, 소설 한 편 못 썼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다시 돌아가도 아마 같은 길을 걸었을 것 같아요.”

#서민과 약자 편에 선 국회의원 김승남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 40대 초선 김승남 국회의원은 중국에서조차 금지된 발암물질 ‘니트로푸란’이 들어있는 중국산 닭꼬치가 무려 4년간이나 수입된 사실을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먹거리에 관한 것으로 국민적 관심이 지대했다. 수입업체의 승인 취소는 물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었지만, 정부는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가 2012년 한번 적발돼 승인 취소가 어렵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김 의원의 폭로는 단발성으로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2014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중국 수출작업장에서 만든 닭꼬치가 수출 가공장의 이름을 바꾸고, 닭꼬치에서 프레스햄으로 품목을 바꿔 버젓이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자 다음날인 10월 8일 검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국회의원 김승남은 ‘중국산 발암 닭꼬치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감 스타로 부상했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을 ‘2014년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도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그를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15년 1월 27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위원으로 나선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불법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불법 투기와 공직자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후보자 차남의 재산 내역 공개를 주도하고 동생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은 부분을 추궁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이 후보자는 2월 17일 국무총리에 임명됐지만, 이후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임명 후 70일 만인 4월 27일 최단기간 국무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임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 발전을 위한 그의 노력도 적지 않았다. 항공 우주산업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10년



대구도시공사를 방문한 뒤 대구의 한 과수 농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남 사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시와 사랑과 청춘의 노래를 꿈꾸던 순정과 청년에서 198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맡아 군부독재타도 앞장

40대 초선 ‘중국산 발암 닭꼬치’ 저격 국감 스타 부상 지방·농어촌 문제 관심 인구감소 지원법 발의 큰 보람

도시공사 산적 문제 해결·미래 비전 창출 책임자 낙점 사업 다각화·신사업 진출로 시민의 공기업 대장정 시작

후 전남이 경남, 대전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되는 초석을 닦았다. 보성군이 보유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5년 울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 해양 복합 레저 공간 조성사업 등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보성군의 대표 특산물인 녹차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 43명과 함께 ‘우리차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기도 했다.

19대(2012~2016년)와 21대(2020~2024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김 의원의 8년은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였다. 그의 심장은 청년 시절의 그것처럼 뜨거웠고, 그의 머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데 사용했다. 허리와 목은 작하고 겸손했으며 맘에 쏙 맞는 두 발과 양손은 쉴새 없이 분주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서민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이 중 지방과 농어촌

문제는 제게 늘 화두였습니다. 8년 내내 밤 낮 없이 열심히 일 했던 것 같습니다. 글썄요, 기억에 남는 입법 활동이라면 고향 사랑 기부제법과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그리고 김 산업 육성법을 발의한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특히 인구 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이를 계기로 현재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에 1년에 1조 원씩 지원되고 있어 지금도 큰 보람을 느낍니다.”

#연구·혁신하는 도시공사 사장 김승남

김승남 전 의원이 제12대 광주 도시공사 사장에 취임한 것은 지난 2024년 10월 7일이다. 내정에서부터 광주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동안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 최종 낙점됐다.

그가 선택받은 것은 30여 년간 정당 활동을 하면서 탁월한 정부 능력과 리더십으로 협력과 갈등 해결의 역량을 발휘한 것은 물론 중앙부처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광주연구 개발 특구, 첨단 3지구, 광주에너지 밸리 조성,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공간 건축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김 사장은 재원 조달이 관건인 도시공사 사업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공사의 수익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신사업을 구상해 나가고 있다. 이제 막 취임 6개월을 지나고 있는 터라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는 체질 개선의 터를 닦고 있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 그리고 이제 막 대 도약의 첫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광주 도시공사가 가야할 길에 대한 그의 의지는 확고했고 방향은 분명했다. 광주시민에 돌아갈 달고 단 열매를 잉태한 도시공사의 미래가 눈에 선했다.

“광주 도시공사가 지속 가능한 공기업이 돼야 합니다. 현재 매출액의 90%가 용지 매출인데, 이것만으로는 수익 창출에 한계가 뚜렷해요. 다각화, 사업 다각화가 꼭 필요합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팽창의 한계를 생각하면 더 그래요. 신사업 진출도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여기서 나온 이익을 저소득층에 재분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뷰 내내 김승남 사장은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이었다. 자신이 지금, 현재 해야 할 일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그리고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다.

여전히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실행력이 돋보였다. 청춘의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시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의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확장돼 있었다. 김승남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듯했다. 네 번째 김승남이 기다려진다.

대담·글=이종주 주필

프로필

△1965년 고흥 출생 △전남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1987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남대협 1기 의장 △19대·21대 국회의원 △현 광주 도시공사 사장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김승남 국회의원.



1984년 대학 새내기 시절 전남대 국문과 마당극 동아리인 ‘국문화’에서 마당극을 하고 있는 김승남 학생.